

## 축산업 위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의 장 되길...



김 남 용

- 박람회추진위원장
-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느껴졌던 '2003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성큼 다가왔다. 이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5개 축산단체가 주최하여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고 금년 3회를 맞게 되었다. 주최는 공동으로 하되 주관단체는 1개 단체가 맡고 있는데 1, 2회는 대한양계협회에서 주관하였으며 금번인 3회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맡게 되었다. 금번의 박람회는 "친환경 축산업의 전개로 국민에게 건강을"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앞에는 자유무역협정(FTA), DDA농업협상 등이 줄줄이 가로놓여 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농업이며 축산업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좌절할 수는 없다.

이 한국국제축산박람회도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발버둥이다. 축산농가 뿐 아니고 축산관련업체들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각자 특단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박람회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였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한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도약을 계속할 것이며 축산관련 모든 산업도 발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양계박람회에서 발전하여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 5개 축산단체가 뜻을 모아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금번 대한양돈협회에서 주관하는 우리 축산물 요리경연대회와 우리 축산물 요리강습 및 소비자 교육은 입찰을 실시한 결과 CJ미디어가 낙찰되어 종전보다 새로운 모습이



기대되고 있고, 대한양계협회에서 주관하는 “양계국제세미나”는 한국가금학회 창립 30주년 행사로 치러져 세계 양계석학들의 발표로 세계 양계산업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한국낙농육우협회의와 한국유가공연구회 공동으로 주최하는 낙농국제세미나에서는 각 단위목장에서 손쉽게 유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기법과 사례들이 발표되기로 되어 있어 낙농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축산관련 전시회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관람하곤 한다. 가서 보고는 실망을 많이 하곤 한다. 우리 실정과는 거리가 먼 전시물에 실망을 하였으나 금번 7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박람회는 우리 축산인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볼거리를 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국제축산박람회를 개최하는 장소는 삼성동 코엑스

(COEX)이며, COEX에서는 항상 2~3개의 전시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으며 지하에는 수족관 등 볼거리도 많아서 우리의 축산박람회 참관 외에 도시의 다양한 모습과도 접할 수 있다. 시간을 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짧은 시간에 많이 얻을 수 있다.

우리 축산 5개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의 축산물은 이 축산 5개 단체의 회원이 이끌어 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은 내가 이끌어 간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한 박람회이므로 전 축산인들이 최소한 하루의 시간을 내어 참관하기를 바란다. 2003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할 수 있도록 박람회에 사랑을 베풀어주시길 것을 기원한다. **양계**